TV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30 굿모닝 A 1부	00 KBS 뉴스광장	00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1~2부
7	10 아침 경제 골든타임	50 인간극장	00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기획 굿모닝 대한민국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8	10 굿모닝 A 2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10 중계방송 유엔총회기조연설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15 여기는 인천 〈수영 남 자유형 100m 예선 (박태환)〉 30 KBS 뉴스 40 박근혜대통령 UN총회 기조연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박근혜대통령 UN총회 기조연설〉	10 인천 2014 〈수영〉
10	10 시사 인사이드	00 여기는 인천 〈수영 남 자유형 100m	50 지구촌 뉴스	00 기분좋은날	30 인천 2014 특집 SBS 뉴스
11)	20 내조의 여왕(재)	예선 외 양궁컴파운드 남녀 단체 및 개인 예선〉	15 사랑의 가족 45 수목드라마 〈아이언맨〉(재)	15 경제매거진 M 스페셜	00 SBS 생활경제 30 KBC 생활뉴스 50 인천 2014 특집 SBS 12 뉴스
12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55 생활의 발견(재)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특별기획 〈마마〉(재)	20 드라마스페셜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재)
0	30 뉴스 특급	00 스카우트(재) 50 제19회 KBS	50 여기는 인천 〈양궁 컴파운드 남녀 단체 준결 및 개인 8강전〉	35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양궁 남여 컴파운드 다체준결/개인 8강〉 〈핸드볼 남 8강 조별리그〉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2	40 직언직설	119상 시상식			00 인천 2014 특집 SBS 뉴스 10 인천 2014 〈배드민턴〉
3	55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KBS 뉴스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4	55 하종대의 쾌도난마	00 시사진단 55 튼튼 생활 체조(재)			00 최강 탑플레이트 30 꾸러기 탐구 생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인천 2014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특집〈나는 국가대표다〉 20 2014 인천 아시안게임	30 여기는 인천 〈남 자유형 100m 결승 (박태환) -여 배구 예선, 대한민국 : 일본〉	40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 축구 16강전〉 〈기계체조 종목별 결승〉	〈펜싱, 수영, 축구〉
7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농구 남자 예선, 대한민국:요르단〉			
8	20 모큐 드라마 〈싸인〉(재)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KBS 파노라마 50 숨 터	00 수목 드라마 〈아이언맨〉	00 MBC 뉴스데스크 30 수목미니시리즈 〈내 생애 봄날〉	00 인천 2014 특집 SBS 뉴스 15 KBC 8 뉴스 30 드라마 스페셜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0	00 웰컴 투시월드	00 KBS 뉴스라인 40 다시보는 불멸의 이순신	10 해피 투게더	40 특선다큐멘터리 〈혀끝으로 만나는 중국〉	45 인천 2014 특집 나이트라인
12	20 카톡쇼 S ①:30 광화문 콘서트(재)	50 네트워크 문화특선 이한철의 올댓 뮤직 ①:40 생활의 발견	30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①:30 리얼 체험 세상을 품다	35 MBC 뉴스 24 55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15 인천 2014 하이라이트

EBS

05:00 World News Review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06:10 세계의 눈	09:35 따개비 루 09:40 부모〈생활백과〉 10:1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특선〉(재) 07:00 시계마을 티키톡(재)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07:15 곤(재)	11:20 세계테마기행
07:30 잭과 팡(재)	〈탄자니아〉(재)
07:45 로보카 폴리(재)	12:00 EBS 정오 뉴스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뽀롱뽀롱 뽀로로(재)	12: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08:35 방귀대장 뿡뿡이	13:05 역사채널e
08:50 How-만들어 볼까요	13:10 부모 광장(재)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00 시계마을 티키톡 17:30 로보카 폴리 14:15 치로와 친구들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4:30 미술탐험대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4:45 미앤마이로봇 19:00 곤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9:30 EBS 뉴스 15:15 어린 왕자 19:50 달라졌어요(재) 15:30 정글북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15:45 모피와 친구들 16:00 딩동댕 유치원 〈본디아, 동티모르〉 21:30 한국기행 (내포기행) 16:20 버블버블 마린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16:35 원더 볼즈 16:45 How-만들어 볼까요(재) 22:45 다문화 고부열전 17:00 방귀대장 뿡뿡이(재) 23:35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24:05 역사채널 e(재)

EBS플러스1

13:40 내 이름은 펑커

13:50 뛰뛰 빵빵 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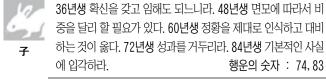
00:00 703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미적분과 통계 기본〉(재)
〈한국사〉	11:40 박봄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00:50 " 〈한국지리〉	12:15 703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01:4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	〈수학 I B형〉
02:30 " 〈영어-듣기〉	13:05 " 〈국어 B형〉
03:20 뉴 탐스런 〈한국지리〉	14:00 " 〈물리Ⅱ〉
04:10 " 〈과학〉	14:50 " 〈화학Ⅱ〉
05:00 " 〈한국사(하)〉(재)	
05:50 2013 포스 〈미적분과 통계 기본〉	16:30 " 〈지구과학Ⅱ〉
06:40 압축탐스런 〈지구과학 I〉	17:20 " 〈사회문화〉
07:30 2014 포스 〈문학Ⅱ〉	18:10 " 〈경제〉
08:20 수능특강 light(영어-독해)(재)	19:00 " (영어)
09:10 " (영어-듣기〉(재)	20:00 EBS-N제 〈국어 B형〉(재)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10:50 2013 포스	22:00 인터넷 수능 〈문학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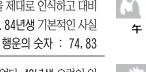
EBS플러스2

	공인중개시 실험관찰 t			15:20	중간학업	성취도평	가 대비특강 〈과학 3-2〉
	전산세무호			15:50	"		〈과학 4-2〉
08:30	매경 TES	T 시험대비	강좌	16:20	"		〈과학 5-2〉
09:00	즐거운 수회	탁 EBS MA	ΛTH	16:50	"		〈과학 6-2〉
09:10	TV 중학	\ -	국어(1)②〉	17:20	만점왕 평	가문제풀	0
09:50	"		〈영어 1〉			〈수학집	J중 6-2〉(재)
10:30	"		〈도덕 2〉	18:00	TV 중학		〈역사(하)〉
11:10	"	\ -	국어③④〉	18:40	"		〈사회 3〉
11:50	"		〈영어 2〉	19:20	필독 중학	· 한국사(X	(H)
12:30	중학 중간 ·						
	문제 풀이	((사회1-2)	20:50	EBS 기호	식시리즈	
13:10	"	<	(과학1-2)	21:40	한국기행		
13:50	"	<	'과학2-2〉	22:00	등업 신공	1	〈과학 3-2〉
14:30	"	<	역사 1-2〉	22:40	중학e포	스 영어독	해〈주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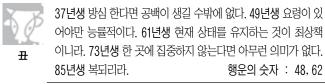
知天命이 설문 오늘의 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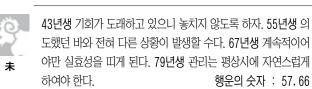
9월 25일(음 9월 2일 己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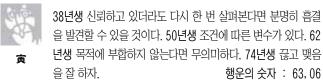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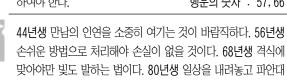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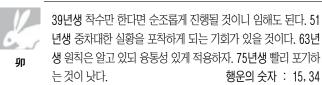
42년생 현태대로 지탱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니라. 54년생 애매 하다면 실행할 필요 없다. 66년생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차원이 달라질 것이니라. 78년생 유기적 기능을 하면서 발전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5,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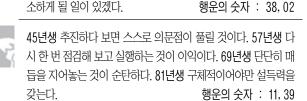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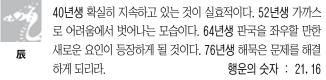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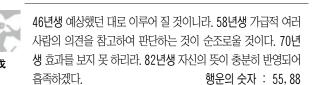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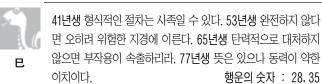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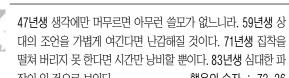












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2, 2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시나리오에 반해 베드신 고민도 안했죠"

욕망에 눈먼 남자 심학규 役 정우성

"베드신이 있다거나 역할이 아빠라는 점은 전혀 고민거리가

새 영화 '마담 뺑덕'에서 낯선 모습을 보여줄 배우 정우성 (41)의 이야기다.

영화는 효의 상징인 옛 고전 심청전을 오늘날로 가져와 치정 멜로로 재탄생했다.

23일 오후 서울 성동구 CGV왕십리에서 열린 '마담뺑덕' 시 사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정우성(41)은 "시나리오가 자 꾸 끌렸다"고 밝혔다.

"시나리오가 정말 기발했어요. 심청전에서 뺑덕과 심학규 사랑에 초점을 둬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것이 시나리오를 읽는 내내 흥미진진했어요. 제가 심학규를 연기하면 이런 감정 들을 맛볼 수 있겠구나, 이런 표현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제 앞의 것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런 시나리오를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욕망대로 움직이는 나쁜 남자인 심학규 교수로 분한 정우성 은 "물론 제 나이 때에 탐욕스러움과 방탕함을 잘 보여줄 수 있 는 역할인데 굳이 더 나이 든 이후로 미룰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

영화는 추문에 휩싸여 소도시로 좌천된 대학교수 심학규가 그곳에서 만난 스무 살 처녀 덕이(이솜 분)를 뜨겁게 사랑한 다 음 차갑게 배신하는 데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한다.

8년이 흐른 뒤 심학규는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지만 점점 시력 을 잃는다. 이때 이름을 세정으로 바꾼 채 심학규 앞에 나타난 덕이는 복수를 위해 심학규와 그의 딸 청이를 점점 파멸로 몰아 넣을 준비를 한다. 영화는 다소 충격적인 복수극을 펼친다.

정우성은 "심학규가 처하는 상황이 연기하면서도 처음 겪는 것이었고 한 인간으로서도 공감이 안 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 들이 있어서 심학규를 잘 이해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우성은 영화에서 이솜(24)과 함께 수위 높은 베드신을 여

러 차례 선보인다. 첫 주연을 맡은 이솜은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 제목만 보 고 코미디인줄 알았다"면서 "영화가 순수한 사랑과 지독한 사랑을 강렬하게 표현해서 끌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덕이의 감정 폭이 다양하고 넓어서 정말 도전해보고 싶었다"면서 "배울 점도 많고 전혀 후회가 없다"고 덧붙였다.

영화는 다음달 2일 개봉한다.



"친엄마·새엄마·시엄마

결혼 생각 없어졌어요"

종영 '엄마의 정원' 서윤주 役 정유미

"일일극 한편을 끝낸 것인데 미니시리즈 세 편 정도는 찍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체력에서는 안 빠지는데 이번에는 초반에 쓰러지기까지 했으니까요. 한 인물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렇

게 집중적으로 그려보긴 처음입니다." 정유미(30)는 다시 생각해도 '파란만장했다'는 듯 이렇게 말 하며 웃었다.

말 그대로였다. 최근 시청률 15.1%로 종영한 MBC TV 일일 극 '엄마의 정원'의 주인공 서윤주의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다.

낳고는 버린 친엄마, 길러주긴 했지만 정이 없었던 새엄마, 결국은 자신을 이혼으로 내몬 악덕 시엄마 등 세 엄마에 둘러 싸인 서윤주의 인생은 복잡했다. 불임으로 판정되자 대리모까 지 거론되는 수모를 겪었고, 우여곡절 끝 이혼한 전 남편과 재 결합한 후에는 입양을 선택한다.

그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한 작품 안에서 했다. 그런데 모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라 이해하고 납득하며 연기 하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다.

일단 출생의 비밀이 나오고 악덕 시엄마가 등장하는 것만으 로 '막장 드라마'의 전형적인 요소를 갖춘 '엄마의 정원'은 서윤 주가 구박을 받을수록, 고통을 받을수록 시청률이 상승했고 동 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그는 호흡을 맞춘 선배 연기자 고두심, 나영희, 김창숙에 대 한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선배님들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나영희 엄마와 는 '옥탑방 왕세자' 때 모녀간으로 호흡을 맞춘 후 이번이 두 번

째라 많이 친해졌어요. 정말 편하게 대해주세요. 고두심 엄마 는 존경하게 됐어요. 카메라가 절 잡을 때도 상대역으로서 본 인 부분을 연기할 때보다 더 감정을 잘 잡아주셨어요. 인간적 으로도 배운 게 정말 많고요. 어떻게 나이가 들어야하는지 고 두심 엄마를 보며 느꼈어요. 시엄마를 연기한 김창숙 엄마와는 연기적으로 제일 강도 높게 부딪쳐서 그런지 가장 많이 가까워 졌어요. 촬영 끝나니까 '우리 이제 즐겁게 살자'고 하시며 와인 사주신다며 놀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윤주가 겪은 모진 시집살이는 미혼녀들에게 결혼에 대한 공포감마저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재미있는 게 저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결혼에 대한 생각마 저 없어졌는데 일일극에 출연하고, 작품이 인기를 얻다보니 이 드라마를 하면서 저희 엄마를 통해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연락이 많이 왔어요.(웃음) 확실히 어른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 에 출연하니 피드백이 다르더라고요."

연예계에는 두 명의 배우 정유미가 있다. '다른 정유미'는 현 재 KBS 2TV 월화극 '연애의 발견'에 출연 중이다. 둘 다 나란 히 2004년에 데뷔했고 나이도 한살 차이로 비슷하다. 자연히 여러 면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캐스팅, 광고 섭외, 기사 등 연락이 잘못 오거나 오류가 종 종 생겨요. 심지어 어떤 기사는 우리 두 사람의 사진을 혼용하 면서 '얼굴이 자꾸 바뀐다'고 하기도 했더라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그분하고 함께 토크쇼에 나가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재 미있을 것 같아요.(웃음)" /연합뉴스